

리브빛 머리의 키가 크고 얼굴이 야윈 사내로, 움푹 꺼진 눈에다가 검은 눈썹이 일자로 붙은 생김새를 하고 있었어. 감정이 북받친 비르지니는 폴의 팔을 잡고 집주인에게 다가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들 뒤에 넷 걸음 떨어져 있는 당신의 노예를 부디 용서해달라며 간청했지. 처음에 그 사람은 행색이 초라한 두 아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비르지니의 우아한 몸매와 파란 망토 아래 아름답게 빛나는 금발머리를 보고, 또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말을 하면서 마치 온몸이 떨리듯 진동하는 목소리의 고운 음성을 듣고, 입에 물고 있던 파이프를 떼고는 등나무지팡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노예를 용서하겠노라 추잡한 맹세를 했다네. 곧바로 비르지니는 노예에게 앞으로 나와 주인에게 가라고 손짓했어.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를 달아났고, 폴도 그 뒤를 쫓아 뛰었네.

둘은 같이 아까 내려왔던 언덕 뒤편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다다라서는 피곤과 배고픔과 갈증에 허덕이며 나무 아래 앉았지. 해가 뜨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5리외 넘게 왔던 게야. 폴이 비르지니에게 말했네.

“동생아, 정오를 넘겼으니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저녁거리를 찾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니 언덕을 다시 내려가서 그 노예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먹을 걸 좀 달라고 해보자.”